



양계안테나

홍보팀

통계로 본 세계속의 한국 양계산업 닭고기 생산 38위, 계란생산 20위 기록

농림부가 우리농업의 각 부문을 세계 각국과 통계로 비교함으로써 세계속의 우리농업의 위치를 파악하고자 지난 4월 25일 '2003년도 통계로 보는 세계속의 한국농업'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 닭고기(정육기준) 생산량은 28만6천톤으로 세계 38위(OECD 16위), 계란생산량은 50만3천톤으로 세계 20위(OECD 11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 전체 육류생산 154만톤으로 세계 28위(OECD 15위)를 기록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채란업이 육계업보다 세계 축산물 생산량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란계와 육계를 포함한 닭 사육수수는 1억200만수로 세계 32위(OECD 10위)로 지난 2001년과 변화가 없었으며, 세계에서 닭을 가장 많이 사육하는 나라는 중국(39억수), 미국(19억수), 브라질(10억수)순으로 나타났다.

양계산물을 제외한 축산물 생산량을 비교해 볼 때 쇠고기 생산량(지육기준)은 20만3천톤으로 세계 43위(OECD 18위), 돼지고기(지육기준)는 1백만4천톤으로 세계 18위(OECD 13위)를 기록했으며, 오리고기(정육기준)는 4만5천톤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9위(OECD 4위)로 나타나 오리고기의 비중이 타 축산물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출량을 볼 때 닭고기는 3백만불을 수출해 세계 40위(OECD 22위), 오리고기는 세계 17위(OECD 12위)를 기록했으며, 쇠고기 수출은 세계 94위(OECD 29위), 돼지고기는 3천1백만불을 수출, 세계 24위(OECD 20위)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량을 보면 닭고기는 9천5백만불을 수입, 세계 17위(OECD 11위)를, 오리고기는 4백20만불을 수입, 세계 10위(OECD 9위)로 각각 나타났으며, 쇠고기 수입은 11억7천7백만불을 기록, 세계 4위(OECD 4위)로 나타났고, 돼지고기는 1억 9천6백만불을 수입, 세계 19위(OECD 17위)를 보였다. 세계 육류수출액이 많은 나라는 미국, 호주, 네덜란드 순이며 수입액이 많은 나라는 일본, 미국, 이탈리아로 나타나 이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수출입전략을 세울 경우 양계산업의 미래도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전 세계 200여국과 OECD회원국 30개국과 비교한 수치로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우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국내 총생산액(4,273억달러)중 농어업 생산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지속적인 감소세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으며, 농가인구는 3,591천명으로 세계 65위(OECD 6위)로 조사되었고, 농가 인구비중은 7.5%로 175위를 기록하면서 선진국형 산업구조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국 닭질병 방역 세미나 개최 AI 예방 등 방역에 대한 인식 제고

전국적으로 질병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호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도 ND, 저병원성 AI 등은 일부 농가에 피해를 가져오고 있으며, 가금티푸스도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이 멈추지 않고 있어 질병 감소현상은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3월 20일 경기도 양주시를 마지막으로 자취를 감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1년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아직도 그 당시 상황을 잊어서는 안되며 이에대한 대비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북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불안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고, 태국 등 동남아시아의 경우 이 질병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소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도네시아의 경우는 공식적으로 백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허락을 할 정도로 전파의 심각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한국과 일본이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첫 공동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보다 체계적인 국제적인 공동망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처럼 질병 예방은 양계업의 승패를 좌우할 정도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본회에는 오는 2일과 24일 대전(홍인관광호텔)과 이천(미란다호텔)에서 전국 양계인을 대상으로 현장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고 있는 질병들을 대상으로 재점검 차원에서 전국 순회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로부터 질병방역 정책을 들여보는 자리가 마련되며,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예방대책도 다루어진다. 특히, 외국의 저명한 강사들을 초빙하여 살모넬라와 ND에 대한 강의가 마련되어 있으며, 양계인들이 모여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미나를 개최하다보면 일부 양계인들은 세미나에 참석해야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참여를 꺼려하는 부류도 있는가 하면 참석하면 무엇이든 한가지라도 얻고 가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빠지지 않고 참석한다는 농가도 만날 수 있다. 질병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에게 점수를 주고 싶다.

계열화 사업에 대한 새로운 쟁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

육계계열생산농가와 계열주체 대표들이 지난 5월 19일 농림부에서 '육계계열생산 위탁사육' 관련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만남은 계열화사업의 확대에 따른 계약관계의 불만이 농가들로부터 표출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회에서는 지난 2002년도 육계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서기도 하였으나, 표준계약서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할 뿐만아니라 이미 계열사들의 계약방식과 계약형태가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시세보너스 적용 이외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날 계열농가측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계열사들의 이익은 증가하였음에도 육계농가의 수익은 상대적으로 감소한 점을 들면서 육계사육비 인상을 비롯 병아리품질 문제, 사료품질 문제, 계열주체에 대한 채권 확보, 표준계약서 작성 운영, 계약방법 개선, 난계대 질병 발생원인의 단계별 책임소재 규명, 상처비 및 깔짚비 현실화 등 8개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 생산비 상승 요인 분에 대해서는 사육 수수료를 인상해야 할 것이며, 병아리와 사료문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농가에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문제해결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통해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계열사측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오히려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시설 및 규모확대와 도체가격 고시를 통해 유통을 바로잡는 것이 급선무임을 피력하였다. 하지만 사료품질 향상을 위해 일부 계열사에서 품질이 나쁠 경우 페널티를, 성적이 좋을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채택해 큰 효과를 보면서 병아리와 사료의 품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하고 있어 농가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가고 있음을 예시하기도 하였다.

생산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대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열사와 계열농가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정부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협의체 구성은 조만간 모든 계열사들간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곧 발전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수수료 문제도 검토의 뜻을 밝히면서 조만간 현실적인 반영이 기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로의 입장차이만을 확인하고 성과없는 회의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이 문제에 농림부가 직접 관심을 보였다는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양계**